

만성 신부전 환자에서 발생한 양측성 신세포암 1예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난희 · 신영태 · 이강욱 · 나기량 · 이영모 · 정사라 · 김의식 · 정지윤 · 장원익

Both Renal Cell Carcinoma in end Stage Renal Disease Patient

Nan-Hee Kim, Young-Tai Shin, Kang Wook Lee, Ki-Ryang Na
Young-Mo Lee, Sarah Jeong, Eui-Sik Kim, Ji-Yoon Jung, Won Ik Jang

Division of Nephrolog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서론 : 만성 신부전의 신세포암의 커다란 위험인자이다. 투석 환자의 36.5%에서 신낭종이 발생하며 25%가 신종양이고 이중 17.5%가 신세포암이다. 양측성 신세포암은 전체 신세포암의 1-2% 정도이다. 저자들은 고혈압에 의한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서 투석 중과 신장 이식 후 1년 반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한 양측성 신세포암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한다.

증례 : 33세 남자가 좌측 신장의 신세포암으로 수술을 위하여 입원을 하였다. 환자는 평소에 음주 및 흡연은 하지 않는 분으로, 과거력상 98년도에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았고, 2000년도에 고혈압에 의한 만성 신부전으로 진단을 받았다. 2000년 3월부터 정기 혈액투석을 받았고, 2005년 6월에 우측 신장에 가로 2.9 cm, 세로 2.6 cm 크기의 신세포암이 발견되어 우측 신장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 받았다. 이후 재발은 없었고 외래에서 추적관찰을 하면서 지냈다. 2006년 8월에 사체 공여로 신장이식을 시행 받았고 이후 신장내과 외래를 정기적으로 다녔다. 외래 복용 약으로는 trimethoprim 80 mg, sulfamethoxazole 400 mg, cyclosporin 300 mg, prednisolone 10 mg, mycophenolate mofetil 1,500 mg이었다. 2007년 1월인 내원 1달 전에 발열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폐렴으로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던 중, 좌측 측복통이 발생하여 시행한 복부 CT상 좌측 신장에 약 1cm 크기의 고혈관성의 신종양이 발견이 되어서 신세포암으로 진단을 받았다. 내원 당시 활력 징후는 안정적이었으며 폐렴은 모두 호전되어서 발열은 없었다. 혈액 검사상 WBC 11,200/uL, Hb 13.5 g/dL, platelet 271,000/uL 이었고, BUN/Cr 17/1.3 mg/dL이었다. 제 1병일에 좌측 신장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조직 검사 상 이전의 신세포암과 같은 종류인 clear cell type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합병증이 없고 상태가 안정화 되어서 제 6병일에 퇴원을 하였다.